

#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주님께로 모아 그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이러한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이번 달 리아호나를 읽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 이는 이번 호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특별한 메시지가 실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호를 통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간증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배우는 가운데 이를 통해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과 바리새인들간의 흥미로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시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

냐?” 예수님의 이 간단한 말씀에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께 나아와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마태복음 22:41~46 참조)

한편,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경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병고침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에 처해졌을 때에도, 그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을 확실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 후기에도 그분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시며, 인류의 구속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들에 맞서도록 도움을 주며,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을 실현시켜줍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치유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문경을 읽고 모로나이의 성스러운 약속(모로나이

서 10:3~5)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구주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리아호나 특별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읽는다면, 예수가 구주라는 한층 더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자 하노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해라.”(이터서 12:4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물문의 이 권고를 따릅시다. 이번 달 특별호를 통해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역시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달 리아호나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진심을 다해 겸손하고도 엄숙한 우리의 증언과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할 때, 답을 주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인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며, 참된 평화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가즈히코 야마시타  
최윤환